

## 북경대학 소장 한대의간(漢代醫簡)과 노관산 의간(老官山醫簡)의 비교 연구

<sup>1</sup>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대학원생 · <sup>2</sup>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응용의학교실 교수  
김범수<sup>1</sup> · 김기왕<sup>2\*</sup>

### A Study Comparing the Han Period Bamboo Slats of the Beijing University Collection with the Laoguanshan Collection

Kim Beomsu<sup>1</sup> · Kim Kiwang<sup>2\*</sup>

<sup>1</sup>Graduate Student at Pusan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Korean Medicine

<sup>2</sup>Professor at Pusan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Korean Medicine

**Objectives** : Overlapping contents between two recently discovered Han period bamboo slats, the so-called "*Beidahanjian*" and the "*Liushibingfang*" have been identified. This study aims to present new knowledge that could be inferred from the concordance of these two texts.

**Methods** : The most recent original texts of the medical part of the *Beidahanjian* and medical texts excavated from the *Laoguanshan* in addition to the *Liushibingfang* were compared with each other to determine identical parts. The meaning of these concordances was explored.

**Results** : Identical sentences in two verses in the *Beidahanjian* and the *Laoguanshan* were identified.

**Conclusions** : The *Beidahanjian* is a credible Western Han period text, of which the medical bamboo slats are likely to comprise an independent text that is a combination of ancient folk prescriptions and those of doctors.

**Key words** : Han period bamboo slats from the Beijing University Collection, the Laoguanshan medical text, Sixty Prescriptions, Tianhui medical bamboo slats, Western Han medicine.

\* Corresponding Author : Kim Kiwang.

Pusan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Korean Medicine.

49 Busandaehak-ro, Mulgeum-eup, Yangsan-si, Kyungsangnam-do, ROK.

Tel: +82-51-510-8466, E-mail: kimgiwang@hanmail.net

저자는 본 논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그 어떠한 이해 상충도 없습니다.

Received(January 26, 2023), Revised(February 13, 2023), Accepted(February 14, 2023)

Copyright © The Society of Korean Medical Classics. All rights reserved.

©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I. 서론

2009년 1월 11일, 중국 북경대학(北京大學, 베이징대학)에 3,346매의 죽간이 해외로부터 기증되었다. 이 죽간 문헌은 현재 “북경대학장서한죽서(北京大學藏西漢竹書)”, 줄여서 “북대한간(北大漢簡)”이라고 부르고 있다(이하 북대한간으로 약칭함). 이 문헌의 기증자와 최초 입수 경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으나 보존 상태가 극히 우수하고 문자가 정갈하며 필획이 뚜렷하여 한대의 문헌으로서 보기에 드문 보존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sup>1)</sup>. 그런데 문헌의 출토 지점을 알 수 없는 문헌에 대해서는 이것이 혹 위서(僞書)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제기될 수 있고, 더욱이 이처럼 예외적으로 보존 상태가 우수할 경우, 문헌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더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학계에 보고된 고문헌 가운데 후속 연구 결과 날조된 문헌인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간혹 있었기 때문이다. 일례로 그간 중국학사 분야에서 상당한 비중을 두고 소개해 왔던 신발견 문헌인 도홍경(陶弘景, 456-536)의 『보행결장부용약법요(輔行訣臟腑用藥法要)』는, 근래의 연구에서 도홍경의 저작이 아니라는 보고<sup>2)</sup>가 제기된 바 있고 종래에 알려져 있던 바와 달리 둔황(燉煌)의 장경동(藏經洞) 문서로부터 필사된 문헌도 아니라는 지적<sup>3)</sup>이 있었다. 북대한간 역시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즉, 2016년 형문(邢文)은 죽간의 형태와 글자의 형태로부터 각기 세 가지 혐의점을 제기하여 북대한간에 포함된 『노자』가 위조된 문헌이라고 주장하였다<sup>4)</sup>.

그러나 흥미롭게도 북대한간이 기증된 지 3년 반 가량 지난 2012년 여름 중국 사천성의 성도(成都)

에서 발굴된 일군의 의학 문헌, 즉 현재 “노관산 의서(老官山醫書)” 또는 “천회의원간(天回醫簡)”으로 불리는 문헌에 북대한간의 일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양자의 비교 과정에서 저자는 인지하게 되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러한 문헌 원문의 일치하는 문헌의 위조 가능성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다만 당시 확인한 원문의 분량이 문헌 전체에서 극히 일부이고, 저자가 이를 인지한 시점(2021년 초)에 북대한간과 노관산 의서는 곧 원문 전체가 공개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저자는 두 문헌이 전면 공개가 이루어지자마자 두 문헌의 전면적 비교를 하여 보다 선명하게 북대한간의 진실성을 입증하고 아울러 두 문헌을 면밀하게 상호 비교하여 그 이동(異同) 사항에서 짚어낼 수 있는 학문적 의의를 전면적으로 탐구해 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두 문헌의 원문 전면 공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북대한간은 『북경대학장서한죽서(北京大學藏西漢竹書)』라는 7권의 책으로 출판이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 5권까지만 출판되었고 의서 원문을 담은 7권의 발간은 계속해서 미루어지고 있다. 노관산 의서도 마찬가지로의 상황이다. 노관산 의서는 『천회의원간(天回醫簡)』이란 이름으로 전체 내용의 공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고되어 있었으나 이미 여러 차례 출간이 미루어졌고 논문 작성 시점에서도 여전히 출간이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연구 결과 발표를 미루는 것보다는 현재 공개된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학술적 지견을 지면을 통해 보고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저자는 하게 되었고, 본 학술지에 연구 결과를 제시하게 되었다.

이제 아래에서 두 문헌의 내용적 일치 여부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한다.

## II. 본론

### 1. 문헌 개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북대한간과 노관산 의서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1) 朱鳳瀚, 韓巍, 陳侃理. 北京十學藏西漢竹書概說. 文物. 2011. 61(6). p.49. “竹簡保存狀況極佳, 加之文字抄寫工整, 書法精美, 在出土簡牘中實屬罕見。”  
2) 孫興亮, 劉超. 淺析《輔行訣臟腑用藥法要》是否陶弘景所著及其與《黃帝內經》的傳承關係. 中國民間療法. 2011. 30(12). pp.16-19.  
3) 田永衍. 《輔行訣臟腑用藥法要》非藏經洞遺書考. 南京中醫藥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15. 16(4). pp.232-237.  
4) 邢文. 北大簡《老子》辨僞. 光明日報. 2016年 8月 8日. [cited on Jan 20, 2023]; Available from: <https://kknnews.cc/culture/5aerVEL.html>



그림 1. 기증 당시 『북대한간』의 모습. (a) 기증 자료의 상태를 조사하는 연구원들. (b) 기증된 죽간의 예. 보도 자료: 저자 미상. 三千多枚西漢竹簡從海外搶救回歸, 揭歷史迷案, 秦二世爲正當繼位. 每日頭條. 2017年 5月 30日.

### 가. 북대한간(北大漢簡)

북대한간은 2009년 초 북경대학에 기증된 문헌으로서 죽간의 전체 수효는 3,346매이고 이 가운데 온전한 죽간이 1,600매이며 나머지 죽간은 부분적으로 파손된 죽간이다. 죽간을 관리하고 있는 북경대학 출토문헌연구소는 기증자의 요청에 따라 기증자의 신상 정보와 상세 입수 경위를 밝히고 있지 않다. 다만 북경대학 출토문헌연구소의 연구자 주봉한(朱鳳瀚)은, 죽간에 남아 있는 진흙과 죽간을 연결한 끈, 그리고 기증할 때 함께 전달된<sup>5)</sup> 직물과 칠기 조각을 분석하여, 이 죽간이 중국 남부의 한대(漢代) 분묘에서 발굴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sup>6)</sup>. 근래에 중국에서 발굴된 문물이 국외로 밀반출되어 골동품으로 거래되었다가 다시 중국으로 환수되는 사례가 종종 있었는데, 북대한간 역시 그러한 사례의 하나로 보인다.

죽간의 표면은 대체로 황갈색이고 일부는 암갈색이었다(그림 1 참조). 일부 죽간에는 흑색 문자 외에 홍색의 구분선과 몇 가지 다른 색으로 채색된 도형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색상이 모두 선명하였다. 죽간의 길이는 대략 23cm(한대의 1척), 30~32cm(한대의 1척 3촌~1척 4촌), 46cm(한대의 2척)의 3개 부류로 나눌 수 있었다. 길이 23cm의 죽간은 모두 의학 분야의 내용을 기술한 것이었다. 의학 문헌을 포함한 북대한간 전체의 문헌 구성은 표 1에 요약한다.

북대한간에는 필사자가 다르리라 짐작되는 여러 필체의 글씨가 적혀 있으나 모두 한대의 예서체(隸書體)로 작성되어 있다. 북경대학 출토문헌연구소의 연구자들은 죽간의 서체와 내용을 토대로 이 문헌의 작성 시기(필사 시기)가 전한 무제 후기(기원전 104년~기원전 87년)인 것으로 추정하였다<sup>7)</sup>.

표 1에 적었듯이 북대한간에서 의학 문헌에 해당하는 죽간은 모두 711매이고 처방이 중심인 문헌으로서 대략 180여개<sup>8)</sup>의 처방을 수록하고 있다. 북대

5) 기증 당시 죽간은 그 길이에 따라 9개의 서로 다른 크기의 플라스틱 통 안에, 방부 보존액인 글리옥살 용액 속에 담겨 있었다. 통 안에는 죽간 이외의 잔류물이 소량 섞여 있었다고 한다. 朱鳳瀚, 韓巍, 陳侃理. 北京大學藏西漢竹書概說. 文物. 2011. 61(6). p.49.

6) 저자 미상. 三千多枚西漢竹簡從海外搶救回歸, 揭歷史迷案, 秦二世爲正當繼位. 每日頭條. 2017年 5月 30日. [cited on Jan 20, 2023]; Available from: <https://kknews.cc/culture/5aerVEL.html>

7) 朱鳳瀚, 韓巍, 陳侃理. 北京大學藏西漢竹書概說. 文物. 2011. 61(6). p.53.

8) 북대한간의 의학 문서에는 처방집의 목차에 해당하는 부분이 따로 작성되어 있다. 여기에는 매 처방마다 처방의 번호가 부여되어 있는데 현재 확인되는 가장 큰 숫자는 187번이다. 따라서 북대한간이 갖 편집되었을 당시에는 최소 187개의 처방이 수록되어 있었을 것으로 단정할 수 있다.

표 1. 북대한간에 포함된 문헌들

문헌명	내용	죽간 매수	죽간 길이(mm)	죽간 폭 (mm)
창힐편(蒼頡篇)	문자 해설서. 현전(現傳) 문헌.	86	302~304	9~10
조정서(趙正書)	역사 기록. 진시황(“趙正”) 사망부터 진 멸망까지의 역사. 실전(失傳) 문헌.	51	302~304	8~10
노자(老子)	도가 경전. 현전 문헌.	280	319~322	8~9
주훈(周訓)	어록. 『한서·예문지』의 『주훈(周訓)』에 해당. 실전 문헌.	221	302~304	9~10
망계(妄稽)	고대 소설. 실전 문헌.	107	320~322	8~9
기타의 자부(子部) 문서	문답식 어록 위주. 대체로 유가와 음양가 문헌에 해당. 실전 문헌.	31	집계 없음(다종)	집계 없음(다종)
반음(反淫)	소위 칠체(七體)에 해당하는 운문. 실전 문헌.	59	297~299	9
일서(日書)	점술서. 서죽(筮竹)을 이용한 점 등. 실전 문헌.	695	458~461	7~9
일기(日忌)	백일법 문헌. 실전 문헌.	414	458~461	9~10
일약(日約)	월과 일의 간지에 따른 금기·재해 설명. 실전 문헌.	183	459~461	9~10
침여(摭輿)	풍수학설 문헌. 실전 문헌.	77	294~294	8~9
우서(雨書)	기상 예측을 위한 점술서. 실전 문헌.	65	321~322	8~9
육박(六博)	바둑판을 활용한 점술서. 실전 문헌.	49	299~300	8~9
형결(荊決)	주판을 이용한 점술서. 실전 문헌.	39	322~325	9
절(節)	여러 수술서(數術書)의 통합 편집 문헌. 실전 문헌.	65	298~300	8~9
의서	문헌명 미정. 처방 중심의 의서. 실전 문헌.	711	230~232	7~9
미분류 죽간		213	집계 없음	집계 없음

한간의 의학 문헌 원문 가운데 현재 공개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sup>9)</sup>. 공개 자료를 제시한 이가호(李家浩) 등의 구분 방식에 따라 「의방(醫方) 목록」, 「의방 갑(甲)」, 「의방 을(乙)」, 「의경(醫經)」의 네 부분으로 나누어 원문을 소개한다.

1) 의방 목록

북대한간에는 의학 처방의 목차에 해당하는 일군의 죽간이 존재한다. 이처럼 고대 문헌에서 별도의 목차가 포함된 예는 종종 확인된다. 1973년 발굴된

중국 장사시의 마왕퇴(馬王堆) 3호 분묘 출토 의서 『오십이병방(五十二病方)』도 그러하고 아래에 설명할 성도 노관산 출토 의서 『육십이병방(六十病方)』도 그러하다. 북대한간의 의학 죽간 공개분 중 처방서의 목차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원문과 해석문을 차례로 제시한다.

一 • 治腹心堅盈方 (죽간 번호 불명)

1번 처방. • 배와 가슴이 단단하고 그득한 것을 치료하는 처방. ※ 원문의 ‘•’ 부호는 죽간에 본래 적혀 있던 기호임.

十二 • 治病心腹堅 六十一 • 治閉不出 百一十

9) 이곳에 옮긴 원문은 다음 논문에 수록된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 李家浩, 楊澤生. 北京大學藏漢代醫簡簡介. 文物. 2011. 61(6). pp.88-89.

一 · 治除病水者 百六十 · 治金傷 (2540簡)

12번 처방. • 가슴과 복부가 단단한 증세를 앓는 것을 치료함. 61번 처방. • 단혀서 나오지 않는 것을 치료함. 111번 처방. • 부종을 앓는 것을 치료하여 제거함. 160번 처방. • 쇠붙이에 의한 상처를 치료함.

廿九 · 治嬰兒索瘰 七十八 · 治癰血 百廿八  
· 字而胞不出 百七十七 · 治心下堅食欲歐 (2664簡)

29번 처방. • 영아삭경(嬰兒索瘰, 신생아 과상풍)을 치료함. 78번 처방. • 비혈(癰血, 미상)을 치료함. 128번 처방. 아이를 낳는데 태반이 나오지 않음. 177번 처방. 명치가 단단하고 밥을 먹으면 구토하려 하는 증상을 치료함.

이상의 내용 외에, 의방 목록에 등장하는 기타의 제명(題名)으로서 현재 공개된 것은 다음과 같다: 「治效」, 「治心下堅」, 「治金傷」, 「治金傷毋痛方」, 「治牝痔有空而膿血出者方」, 「治目痛方」, 「治喉痺噎痛難以飲食」, 「治字有餘疾」, 「治嬰兒病瘰」.

## 2) 의방 갑(甲)

북경대학 출토문헌연구소에서는 북대한간의 의학 문헌 부분이 3종의 의서를 포함한 것으로 보았다. 즉 처방서 2종과 의학 이론서(즉 “醫經”) 1종이 죽간 문헌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았고 위에서 설명한 의방 목록은 첫 번째 처방서, 소위 “의방 갑(甲)”의 목록인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의방 을(乙)”로 분류된 내용이 너무 적고 의학 이론서의 원문으로 분류된 내용이 아래 소개할 한대 처방서인 『육십병방』에도 나오기 때문에 북대한간의 의학 죽간 전체가 하나의 처방서이고 위에 소개한 의방 목록 역시 의학 죽간 전체에 연결되는 목록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북경대학 출토문헌연구소에서 「의방 갑」의 원문으로 예시한 것은 다음과 같다.

五十六 · 治牝痔有空(孔)而膿(膿)血出者方: 取女子布, 燻, 置器中, 以熏痔, 三日而止 (2707簡)

56번 처방. • 암치질에 누공(漏孔)이 있고 고름과 피가 나오는 것을 치료하는 처방: 월사포(생리대)를 구해 불을 붙여서 용기 속에 두고 이것으로 치질을 훈증한다. 3일이 되면 그친다.

百十六 · 治心痛: 茈蔘、黃芩各七, 桂、薑、蜀椒、朱與各一, 黃連、山朱與、少辛各三, 凡九物 (2600簡)

116번 처방. • 심통(心痛)을 치료함: 자삼(紫蔘), 황금(黃芩) 각 7푼[分], 육계, 건강, 촉초, 오수유 각 1푼, 황련, 산수유, 세신 각 3푼, 모두 아홉 가지의 약재를 …….

이 밖에 「의방 갑」에는 『오십이병방』의 「영금상무통방(令金傷無痛方)」과 중복되는 처방이 실려 있다고 한다. 원문이 그대로 공개되어 있지는 않으나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추정된다.

治金傷毋痛方: 取鼯鼠, 乾而治; 取屍魚, 燻而治; 長石、新(辛)夷、甘草各與鼯鼠等, 皆合燒, 取三指最撮一, 入溫酒一杯中而飲之. 不可, 財益藥, 至不痛爲止.

쇠붙이에 의한 상처를 아프지 않게 하는 처방: 두더지를 구하여 말려서 뺨는다. 잉어를 구하여 구워서 뺨는다. 장석, 신이, 감초를 두더지 가루와 동량으로 하여 모두 함께 휘저어서 한 꼬집 만큼을 집어 따뜻한 술 한 잔 속에 투입하여 마신다. 진통이 불가능하면 약을 충분히 증량하여 아프지 않게 되었을 때 (투약)을 그친다.

## 3) 의방 을(乙)

북경대학 출토문헌연구소에서는 북대한간의 의학 죽간 가운데 6매의 죽간이, 위에 설명한 다수의 죽간(즉 「의방 갑」)과 별개의 처방서에 속한다고 보았고 이를 「의방 을」로 지칭하였다. 6매의 죽간 가운데 현재 하나가 공개되어 있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一泫一傳, 它惡傷亦可. • 秦氏方 (2870簡)

(환부를) 한 번 세척하고 (약) 한 번 바른다. 다른 악성의 피부 손상에도 쓸 수 있다. • 진씨방.

표 2. 노관산 의서의 분류와 명명. 2016년 이후 최근까지의 변경 이력

王軍 등 <sup>①</sup>	梁繁榮 등 <sup>②</sup>	柳長華 등 <sup>③</sup>	柳長華 등 <sup>④</sup>
2016년 6월	2016년 10월	2017년 12월	2023년(예정)
오색맥장론(五色脈藏論)	역순오색맥장험정신(逆順五色脈藏驗精神)		
폐석의론(敝昔醫論)	폐석진법(敝昔診法)	맥서·상경(脈書·上經)	맥서·상경(脈書·上經)
병원론(病源論)	진치론(診治論)		
맥사후(脈死候)			발리(友理)
육십병방(六十病方)		치육십병방화제탕법(治六十病和劑湯法)	치육십병방화제탕법(治六十病方和劑湯法)
제병증후(諸病症候)	제병일(諸病一)	맥서·하경(脈書·下經)	
	제병이(諸病二)		
경맥서(經脈書)	십이맥(十二脈)		
	별맥(別脈)		
맥수(脈數)	자수(刺數)	자수(刺數)	
의마서(醫馬書)		언급 없음	요마서(療馬書)
			경맥(經脈)
척간(尺簡)	언급 없음		법령(法令)

- ① 王軍, 陳平, 楊永鵬, 索德浩, 劉祥宇, 謝壽, 陳睿, 金陵, 嚴彬, 武家壁. 成都天回鎮老官山漢墓發掘簡報. 南方民族考古. 2016. 4(1).
- ② 梁繁榮, 王毅. 揭秘敝昔遺書與漆人. 成都. 四川科學技術出版社. 2016.
- ③ 柳長華, 顧漫, 周琦, 劉陽, 羅瓊. 四川成都天回漢墓醫簡的命名與學術源流考. 文物. 2017. 67(12).
- ④ 柳長華 等. 天回醫簡. 北京. 文物出版社. 2023(출간 예정).

4) 의경(醫經)

북경대학 출토문헌연구소에서는 북대한간의 의학 분야 죽간 중 일부(십여 매)가 ‘의방(醫方)’이 아닌 ‘의경(醫經)’에 속한다고 보았다. 공개된 것은 다음의 두 가지 죽간의 원문이다.

曰：死病及心痛、心痺。此皆在腹心肺肝之間，不可別名也，人猥謂之心腹痛 ㄴ 八 (2978簡)

이르기를 “사병(死病, 죽을 병)” 및 “심통(心痛)”, “심비(心痺)”라고 한다. 이는 모두 (병소가) 배와 심, 폐, 간의 사이에 있는 것으로서 달리 이름을 붙일 수 없으며 사람들은 이를 두려워하여 “심복병(心腹痛)”이라 부른다. 여덟 …… ※ 원문의 ‘ㄴ’ 부호는 죽간에 본래 적혀 있던 기호임. 여기(語氣)를 정돈하는 기능. 대체로 현대 중국어의 돈호(頓號, 모점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主脅，芍藥主少腹，病所在即倍其藥，食之服之，廿日病已。其病久甚者，服之百日 (2913簡)

□은 협부(脇部)를 주치(主治)하고 작약은 소복부(少腹部)를 주치한다. 병이 있는 곳에는 곧바로 그 약(그 부위를 주치하는 약)을 두 배로 증량한다. 먹으며 복용하며 20일을 지내면 병이 낫는다. 병이 오래고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100일 동안 복용한다.

나. 노관산 의서

2012년 여름, 중국 사천성 성도시의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전한시대 분묘가 발견되었고 이듬해 여름까지 발굴 작업이 이어졌다. 발굴 지점 일대를 속칭 “노관산(老官山)”이라 부르기 때문에 이곳(정확히는

4기의 분묘 중 세번째 분묘)에서 발굴된 문헌을 “노관산 한간(老官山漢簡)”이라 부르기도 하고, 발굴된 문헌의 거의 전부가 의학 문헌이기에 “노관산 의간(老官山醫簡)”, “노관산 의서”라고 부르기도 한다. 발굴 지점의 공식적 지명은 천회진(天回鎮)이기 때문에 일부 학자는 “천회진간(天回醫簡)”이란 명칭을 쓰기도 한다. 발굴된 죽간의 전체 개수는 920개이며 자료의 매장 시기는 전한 경제(景帝)~무제(武帝) 개위 시기로 추정하고 있다. 북대한간 필사 시기와 거의 같은 시기다. 이 죽간은 한의 기초이론, 침구경락, 한약 처방, 수의학 치료법 등을 다루는 다수의 문헌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2013년 12월, 언론에 최초로 노관산 의서의 소개가 된 이래, 죽간의 분류와 명명에 대해서 여러 차례의 변경이 있어 연구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킨 바 있다. 표 2에 노관산 의서에 포함된 문헌의 구분과 명칭이 그간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요약한다.

노관산 의서를 구성하는 문헌 중 전형적인 처방서에 해당하는 것은 『육십병방(六十病方)』(=治六十病方和劑湯法)이다. 여타의 노관산 의서와 달리 『육십병방』은 꽤 많은 부분이 공개되어 있다. 일본의 연구자 이카이 요시오(猪飼祥夫)는 『육십병방』 원문의 17%를 수집하여 소개하였고<sup>10)</sup>, 국내 연구자 정승한(鄭勝澣) 등은 원문의 45%에 해당하는 분량(4,084자)을 수집하여 소개하였다<sup>11)</sup>. 본 논고에서는 이 두 가지 선행연구 논문에 소개된 원문을 토대로 북대한간과 노관산 의서의 공통 부분을 탐색하였다.

## 2. 북대한간 선행 연구

북대한간이 소개된 이후 이 문헌에 관한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sup>12)</sup>. 특히 북대한간 원문을 공개한 『북경대학장서한죽서(北京大學藏西漢竹書)』 1~5권

이 출간된 이후 해당 출판물에 공개된 북대한간 문헌에 관한 연구는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북대한간본 『노자』나 북대한간에 포함된 『조정서(趙正書)』에 대한 연구는 중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어져 그 성과가 발표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북대한간의 의서 부분은 아직 전면 공개가 되어 있지 않아 연구 논문이 몇 편 되지 않는 상황이다. 다만 본 논고와 관련된 주목할 만한 연구로서 2019년 발표된 주조량(周祖亮), 방의림(方懿林)의 연구<sup>13)</sup>가 있다. 저자가 북대한간과 노관산 의서의 상호 일치 여부를 인지하기 이전, 이 논문의 저자들은 이미 북대한간과 노관산 의서의 일치 부분을 포착하여 보고하였다<sup>14)</sup>.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북대한간과 노관산 의서의 상호 일치 여부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상호 일치를 통해 어떤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지 논하지는 않았다. 본 논고에서는 이를 보완하여 두 의서의 일치 여부가 갖는 학술적 의의를 선명하게 드러내고자 한다.

## 3. 상호 일치 부분

북대한간의 의서 부분 원문과 노관산 출토 문헌 중 『육십병방』 원문을 비교한 결과 상호 일치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았다. 이들은 모두 북경대학 출토 문헌연구소에서 「의경(醫經)」으로 분류한 것들이다. 비교의 편의를 위해 상호 일치하는 문자는 굵은 글자로 표시하였다.

### 가. 첫 번째 일치 부분

북대한간의 2978간(簡)에,

曰：死病及心痛、心痺。此皆在腹、心、肺、肝之間，不可別名也，人猥謂之心腹痛。

이르기를 “사병(死病, 죽을 병)” 및 “심통(心痛)”, “심비(心痺)”라고 한다. 이는 모두 (병소가) 배와 심,

10) 猪飼祥夫. 四川成都老官山の醫學資料概觀(下). 漢方の臨床. 2016. 63(4). pp.550-553.

11) 鄭勝澣, 金基旺. 노관산 한대 분묘 출토 의서 『육십병방(六十病方)』에 관한 고찰 - 기(氣), 혈(血), 본초 귀경(歸經)을 중심으로 -.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20. 33(1). pp.103-133.

12) 許東. 近十年來北大漢簡研究回顧與評價. 齊東師範學院學報. 2019. 34(6). pp.123-132.

13) 周祖亮, 方懿林. 試論簡帛醫書相似文獻的淵源與流傳. 北京中醫藥大學學報. 2019. 42(4). pp.284-288.

14) 이 시점에서 저자는 아직 북대의간과 노관산 의서의 상호 일치를 알지 못하였다. 2021년 초 저자는 두 의서의 일치 부분을 확인하였고, 이후 관련된 선행 연구를 탐색하던 중 周祖亮, 方懿林의 연구 성과를 알게 되었다.

폐, 간의 사이에 있는 것으로서 달리 이름을 붙일 수 없으며 사람들은 이를 두려워하여 “심복병(心腹病)”이라 부른다.

라고 하였는데, 노관산 의서의 171, 175간(『육십병방』의 43번 질병 조문에 해당)에,

曰死病也，及心痛、癢。此皆在腸、心、肝、肺之間，不可別名也，人猥謂之心腹病。

“사병(死病)”이라고 한다. 심장에 미쳐 통증과 비증이 나타난다. 이들은 모두 장, 심, 간, 폐의 사이에 있는 것으로서 달리 이름을 붙일 수 없으며 사람들은 이를 두려워하여 “심복병”이라 부른다.

라고 하여 거의 같은 문장이 두 문헌에 모두 실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나. 두 번째 일치 부분

북대한간의 2913간(簡)에,

□主脅，芍藥主少腹，病所在即倍其藥。食之服之，廿日病已。其病久甚者，服之百日。

□은 협부(脇部)를 주치(主治)하고 작약은 소복부(少腹部)를 주치한다. 병이 있는 곳에는 곧바로 그 약을 두 배로 증량한다. 먹으며 복용하며 20일을 지내면 병이 낫는다. 병이 오래가고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100일 동안 복용한다.

라고 하였는데, 노관산 의서의 157, 160, 172간(이 역시 『육십병방』의 43번 질병 조문에 해당)에

苦參主脇，玄參主腸，芫參主心，芍藥主少腹，病所在即倍其藥。方曰：服之百日。今再試之，廿日其病已。

고삼은 협부를 주치하고 현삼은 장(腸)을 주치하며 자삼(紫參)은 심장을 주치하고 작약은 소복부(少腹部)를 주치한다. 병이 있는 곳에는 그 약을 두 배로 증량한다. 복용법에 이르기를 “100일 동안 복용하라”고 하였다. 지금 거듭 시험해 보니 20일 만에 그 병이 나왔다.

라는 내용이 등장한다. 후자는 글쓴이의 경험을 포함하고 있어 전자와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유사한 내용이고 전자와 일치하는 문자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

#### 4. 북대한간과 노관산 의서의 상호 일치가 갖는 의의

북대한간과 노관산 의서에 서로 일치하는 문장이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점으로서 학술적으로 의미 있는 몇 가지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아래에 그 의의를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 가. 북대한간의 문헌적 진실성

서론에서 설명하였듯이 북대한간은 입수 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기증 문헌이기에 문헌이 위조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주도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노관산 의서에 북대한간과 일치하는 문장이 확인되었다는 사실은 북대한간이 날조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단서가 된다. 왜냐하면 북대한간의 기증 시기가 2009년이기에 3년 후인 2012년 발굴된 노관산 의서의 내용을 기증 문서의 위조에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번의 연구에서 확인한 것은 2건뿐이지만 이 내용만으로도 위작 과정에서 우연히 생성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단정할 수 있다. 특히 위에서 두 번째 일치 부분으로 소개한 내용은 귀경학설(歸經學說)의 원형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는데 노관산 의서를 제외한 한대 문헌에 등장하지 않는 이러한 내용을 대담하게 위작 문서에 끼워 넣는 것은 확실히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실제로 북대한간의 죽간 시료와 편승(編繩, 죽간을 묶는 끈)에 대한 분석<sup>15)</sup>에서도 그 특징이 한대의 일반적 죽간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북대한간 『노자』의 위조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sup>17)</sup>. 이것은 북대한간

15) 胡東波, 張瓊, 王愷. 北大西漢竹簡的科技分析. 文物. 2011. 61(6). pp.90-93.

16) 王愷, 胡東波. 北京大學藏簡牘編繩的顯微分析. 文物保護與考古科學. 2012. 24(4). pp.55-65.

17) 邢文. 北大簡《老子》辨偽. 光明日報. 2016年 8月 8日.

표 3. 고대의 민간 처방서와 의가(醫家) 처방서의 차이.

	고대 민간 처방서	의가 처방서
처방 구성 약물의 수	하나의 약물. 또는 하나의 약을 한 두 가지 약이 보조하는 형태.	다중. 보통 3종 이상.
약물의 종류	『신농본초경』·『명의별록』에 수록되지 않은 재료(월사포, 정액 등)가 많다.	『신농본초경』·『명의별록』에 수록된 재료가 주종이다.
주술적 행위	있다(주문을 외거나 도형을 그리거나 땅에 침을 뱉는 등).	없다.
제형 및 치료 방법	외용약이 많다. 처방서에 약물 요법 외의 치료법이 혼재되어 있다.	내복약이 많다. 처방서 전체가 약물 요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자』의 죽간 형태에서 나타나는 3가지 특징(簡背劃線의 죽간별 각도 불일치, 일부 죽간의 짧은 길이, 나중에 끼워 넣은 것으로 보이는, 簡背劃線이 없는 죽간의 존재)과 문자에서 나타나는 3가지 특징(죽간 잔편에 적은 듯한 문자, 잔편의 글자를 다시 적은 듯한 부분, 잔편 결합 후 2차 수정을 한 듯한 흔적)을 근거로 제시된 비판이었으나, 이러한 죽간 형태와 문자 형태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위조되지 않은 죽간에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이며 여러 학자들에 의해 논박된 바 있다. 특히 크리스토퍼 포스터(Christopher J. Foster)는 이러한 형태적 이상이 위조되지 않은 고대 문헌에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설명함과 함께 그러한 형태적 특징보다 북대한간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훨씬 강력한 논거로서 『창힐편』의 문자적 일치를 들고 있다.<sup>18)</sup> 여기에 소개된 『창힐편』의 문자들 역시 본 논고에서 보인 사례와 같이 과거에 알려져 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조가 불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 나. 전한시대 의서의 복잡성

오늘날의 한의 입상에 응용되는 고대의 처방서,

즉 『상한론』이나 『금궤요략』 등의 처방서와 달리 전한시대 의서 중에는 생소한 민간 처방이 중심인 문헌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가 1973년 호남성 장사시의 마왕퇴(馬王堆) 분묘에서 발견된 『오십이병방(五十二病方)』이다. 북대한간과 함께 근래에 공개된 북경대학 소장의 진대(秦代) 문헌 『의방잡초(醫方雜抄)』에서도 이러한 민간 처방 중심의 편집 형태가 보인다<sup>19)</sup>. 반면 1972년 발견된 후한 초기 문헌 『무위한대의간(武威漢代醫簡)』은, 학술적 기반을 통해 작성되었으리라 보이는, 고대의 의가들에 의해 작성된 처방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즉 전자의 문헌 『오십이병방』, 『의방잡초』 등이 고대 민간 처방서라 한다면 후자의 문헌 『무위한대의간』 등은 의가(醫家) 처방서라 할 수 있다. 아직 두 종류의 문헌을 명확하게 구분할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선 표 3에 요약한 특징이 양자를 구분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구분점이라 생각한다.

전한 경제~무제 시기에 매장된 문헌인 노관산 의서는, 적어도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으로만 본다면, 확실히 의가 처방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북대한간의 의학 죽간에 노관산 의서 『육십병방』의 내용이 중복되어 나타났다는 사실을 근거로 북대한간 역시 의가 처방서라고 간주해도 될까?

그렇지 않다.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으로만 보아

[cited on Jan 20, 2023]; Available from: <https://kknews.cc/culture/5aerve1.html>

18) Christopher J. Foster. Introduction to the Peking University Han bamboo strips: on the authentication and study of purchased manuscripts. Early China. 2017. 40. pp.167-239.

19) 田天. 北大藏秦簡《醫方雜抄》初識. 北京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17. 63(5). pp.52-57.

도 북대한간 속에는, 고대 민간 처방서의 성격을 갖는 『오십이병방』에 수록된 것과 동일한 처방 및 조문이 존재한다<sup>20</sup>. 본 논고에 소개한 ‘치금상무통방(治金傷無痛方 = 令金傷無痛方[五十二病方])’이 그 예이며 56번 처방(암치질에 대한 치료 처방)도 『오십이병방』에 등장하는 처방이다.

비록 북대한간의 내용은 현재 아주 작은 부분만 공개되어 있지만 이러한 예로 볼 때 북대한간을 순수한 의가 처방서로만 볼 수는 없으며 고대 민간 처방과 의가 처방이 혼재되어 있는 복합적 성격의 의서일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는 향후 전한시대 의서 또는 전한 전의 의서를 분석할 때 주의해야 할 점으로 보인다. 즉 향후의 신발견 고대 의서 분석에서 문헌의 성격을 고대 민간 처방서와 의가 처방서 중 어느 한쪽으로만 귀속시키는 것은 무리한 시도가 될 수 있으며 양자의 복합적 성격을 갖는 의서가 충분히 존재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문헌 분석을 해야 할 것이다.

#### 다. 북대한간의 구성에 관한 시사점

북대한간을 최초로 분석하였던 북경대학 출토문헌연구소는 북대한간의 의서 부분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4개의 부분, 즉 의방(醫方) 목록, 의방 갑(甲), 의방 을(乙), 의경(醫經)의 4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북대한간과 노관산 의서의 일치 부분을 보면 이와 같은 구분이 타당하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위에서 지적하였듯이 북대한간에서 의경 부분 원문으로 공개된 2건의 원문은 모두 노관산 의서 『육십병방』에 등장하는 내용이다. 노관산 의서에서는 이 내용이 모두 특정 처방에 관한 부가적 설명 속에 등장한다. 아마도, 2009년 이후 몇 년간 이어진 북대한간의 초기 분석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죽간 하나 하나의 내용만으로 죽간의 문장을 분류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처방에 관한 설명 가운데 한의 기초이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부가되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20) 周祖亮, 方懿林. 試論簡帛醫書相似方藥文獻的淵源與流傳. 北京中醫藥大學學報. 2019. 42(4). p.286.

하지만 2012년 발견된 노관산 의서에는 ‘의경’ 원문으로 공개된 2건의 내용이 처방서의 일부분임이 분명해졌고<sup>21</sup>, 10여 개에 이르는 여타의 죽간에 대해서도 이것이 ‘의경’에 속하는 내용인지 세심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북경대학 출토문헌연구소의 초기 분석에서 「의방 을(乙)」로 분류된 죽간들 역시 사실은 「의방 목록」에 연결되는 하나의 처방, 즉 「의방 갑」과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문헌 내 처방일 가능성이 있다. 『육십병방』에도 구두점 ‘·’ 뒤에 어떤 의가의 처방임을 밝힌 형태(즉 ‘·×××方’의 형태)<sup>22</sup>가 여럿 보이기 때문이다. 공개된 원문 이외에 「의방 을」로 분류된 죽간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 아직 알 수 없지만 「의방 을」이 「의방 갑」과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문헌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북대한간의 죽간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북대한간 의학 죽간은 「의방 목록」 + 「의방 갑」, 「의방 을」, 「의경」의 세 가지 문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의방 목록」 + 「의방」의 형태, 즉 단일 문헌일 가능성이 있다 생각된다.

### Ⅲ. 결론

이상 본 논고에서 확인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대한간의 의학 분야 죽간과 노관산 의서 『육십병방』 사이에 2건의, 상호 일치되는 원문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북대한간은 날조되지 않은 진실한 전한 시대 문헌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북대한간의 의학 분야 죽간은 고대 민간 처방과 의가(醫家) 처방이 혼재된 형태로 보인다.

넷째, 북대한간의 의학 분야 죽간은, 기존의 분석에서 3종의 문헌이 혼합된 것으로 본 것과 달리 전

21) 여기 소개한 두 개의 문장이 노관산 의서 중 처방서에 해당하는 『육십병방』(=『치육십병방화제방법』)에 등장한다. 소개한 두 문장은 기초이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육십병방』 원문을 보면 처방을 설명하는 도중 등장하는 이론적 배경에 대한 설명임을 알 수 있다.

22) ·公孫方(213簡), ·齊北首丞方(161簡) 등.

체가 하나의 처방집인, 단일 문헌일 가능성이 있다.

여러 차례 발간이 늦어진 『북경대학장서한죽서(北經大學藏西漢竹書)』의 제7권 의서편(북대한간의 학 죽간 전체를 포함한 해설서)이 조만간 출판된다면 본 논고에서 제시한 결론의 진위 여부를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 감사의 글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2년)에 의해 연구되었음.

## Reference

1. 柳長華, 顧漫, 周琦, 劉陽, 羅瓊. 四川成都天回漢墓醫簡的命名與學術源流考. 文物. 2017. 67(12).
2. 孫興亮, 劉超. 淺析《輔行訣臟腑用藥法要》是否陶弘景所著及其與《黃帝內經》的傳承關係. 中國民間療法. 2011. 30(12).
3. 梁繁榮, 王毅. 揭秘敝昔遺書與漆人. 成都. 四川科學技術出版社. 2016.
4. 王愷, 胡東波. 北京大學藏簡牘編繩的顯微分析. 文物保護與考古科學. 2012. 24(4).
5. 王軍, 陳平, 楊永鵬, 索德浩, 劉祥宇, 謝濤, 陳睿, 金陵, 嚴彬, 武家壁. 成都天回鎮老官山漢墓發掘簡報. 南方民族考古. 2016. 4(1).
6. 李家浩, 楊澤生. 北京大學藏漢代醫簡簡介. 文物. 2011. 61(6).
7. 猪飼祥夫. 四川成都老官山の醫學資料概觀(下). 漢方の臨床. 2016. 63(4).
8. 田永衍. 《輔行訣臟腑用藥法要》非藏經洞遺書考. 南京中醫藥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15. 16(4).
9. 田天. 北大藏秦簡《醫方雜抄》初識. 北京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17. 63(5).
10. 鄭勝澣, 金基旺. 노관산 한대 분묘 출토 의서 『육십병방(六十病方)』에 관한 고찰 - 기(氣), 혈(血), 본초 귀경(歸經)을 중심으로 -.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20. 33(1).
11. 朱鳳瀚, 韓巍, 陳侃理. 北京大學藏西漢竹書概說. 文物. 2011. 61(6).
12. 周祖亮, 方懿林. 試論簡帛醫書相似方藥文獻的淵源與流傳. 北京中醫藥大學學報. 2019. 42(4).
13. 許東. 近十年來北大漢簡研究回顧與評價. 齊東師範學院學報. 2019. 34(6).
14. 胡東波, 張瓊, 王愷. 北大西漢竹簡的科技分析. 文物. 2011. 61(6).
15. Christopher J. Foster. Introduction to the Peking University Han bamboo strips: on the authentication and study of purchased manuscripts. Early China. 2017. 40.
16. 邢文. 北大簡《老子》辨偽. 光明日報. 2016年8月8日. [cited on Jan 20, 2023]; Available from: <https://kknews.cc/culture/5aeruel.html>